

## 4 월호 인도자 소그룹 교재

### 4월 첫째 주 날짜: 4월 7일

# 제목: 친구가 되어줄 사람

# 본문: 마가복음 2:1-12

# 찬송가 3곡

주 믿는 형제들 221장(통525장)

죄 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통326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통487장)

# 여는 질문 60-80자 (Ice break 형태질문)

만일 내가 차도 없는 시골에서 중풍병에 걸려 눕게 되었다면 나를 들것에 들어서 병원에 데려다 줄만한 친구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인지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되는지 묻습니다.)

# 본문 이해: 800-900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요. 도중에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멍이 뚫어지고 하늘이 보였지요. 뚫어진 구멍 사이로 평상이 줄에 달려 내려왔습니다. 평상 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누워있었지요. 이때 예수님은 천정 구멍사이로 내려다보고 있는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있었지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일어나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혼자 일어서기도 벅찬 환자가 자기 평상을 들고 걸어 나가기까지 한 것이지요.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중풍병자를 평상에 메고 왔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메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해보였지요. 그러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붕위로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 내려놓았지요. 이런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 말씀 속으로(쉽지만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관찰-해석질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절수 표시, 40-80자 이내:1-2줄)

1.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몇 사람의 친구가 메고 왔나요? (3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2.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두기까지 과정을 묵상해보면 어떤 도구, 기구들이 사용되었을까요? (4절)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 상을 달아 내리는 “줄”, 지붕을 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망치, 삽,... 등”,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 삶 속으로(적용 질문 2개, 40-80자 이내:1-2줄, 말씀을 칭의/성화/은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

1. 내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건강, 인간관계, 고집,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2. 예수님께 데려오다가 즉 전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면 왜 포기를 했나요?  
(네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까지 많은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기란 쉽지 않지요. 전도 할 때에 나에게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주님은 본문 말씀의 네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 데려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 암송 구절(주제 본문, 한 주간 암송 가능한 말씀)

막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자녀와 나눔 (가정 소그룹 예배 때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 40-80자)

1.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나요?

2.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4월 둘째 주** 날짜: 4월 14일 종려주일

# 제목: 종려주일의 오해

# 본문: 마가복음 11:1-11

# 찬송가 3곡

호산나 호산나 141장(통132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통138장)

갯세마네 동산에서 157장

# 여는 질문 60-80자 (Ice break 형태질문)

사람을 오해해서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오해당해서 황당했던 일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봅시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오해이지요. 한 가족 안에서도 식구끼리 서로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들이 생기지요. 오해라는 것은 사실 또는 진실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려면 사실 또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나면 어그러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 본문 이해: 800-900자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8마일 떨어진 동네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휴게소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이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말을 타고 가는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어린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겂옷을 나귀 위에 걸쳐두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길에 펴서 밟고 가게 했지요. 구약에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무리들이 돌 위에 자기 옷을 벗어 펼쳐놓고 새 왕이 깔고 앉게 했습니다 (왕하9:12-13).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앉게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같이 권세 있는 왕이 되실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슥9:9).

이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소리이며 또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과 같이 강하게 재건해달라는 소리였지요. “호산나”란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여, 다윗과 같은 왕국을 재건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린양을 오해했습니다.

# 말씀 속으로(쉽지만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관찰-해석질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절수 표시, 40-80자 이내:1-2줄)

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셨던 짐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것을 타셨을까요? (7절)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구약 스가랴 9: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겸손하시기 때문에 타셨습니다. 또한 구약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앞뒤에서 무어라고 외쳤나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9-10절)

(9,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여, 다윗과 같은 왕국을 재건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 삶 속으로(적용 질문 2개, 40-80자 이내:1-2줄, 말씀을 칭의/성화/은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

1.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내 생활에서 겸손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는데도 겸손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는 내가 잘못해서 또는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멸시 천대 오해 등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 암송 구절(주제 본문, 한 주간 암송 가능한 말씀)

마가복음 11: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 자녀와 나눔 (가정 소그룹 예배 때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 40-80자)

1. 주인이 자기 나귀새끼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예수님이 쓰신다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요?

2.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쓰시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이 있나요?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 4월 세째 주 날짜: 4월 21일 부활주일

# 제목: 불신과 고집

# 본문: 마가복음 16:9-14

# 찬송가 3곡

무덤에 머물러 160장(통150장)

주님께 영광 165장(통155장)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 여는 질문 60-80자 (Ice break 형태질문)

핸드폰,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 중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왜 안 믿어지나요?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정보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믿을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은 어떤 것이며 믿을 수 없는 방송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또한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믿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 본문 이해: 800-900자

가룟 유다를 빼고 열한 명의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집에 숨어있었지요. 이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본인이 직접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모여 있던 열 한명의 제자들은 듣고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답답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사실 리가 없다고 고집부리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지요.

이후 절망하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본인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정말 고집도 셧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자 열한 명의 제자들이 함께 음식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리 부활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불신,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고집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또한 고집이 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고집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먼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한 믿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이란 믿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 말씀 속으로(쉽지만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관찰-해석질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절수 표시, 40-80자 이내:1-2줄)

1.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까? (10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일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문제를 꾸짖으셨나요? (14절)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 삶 속으로(적용 질문 2개, 40-80자 이내:1-2줄, 말씀을 칭의/성화/은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

1.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예배에 대해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말라(히 10:25)”, 기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봉헌에 대해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 34:20)”등 이외에도 순종해야 할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2.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고집이 있다면 어떤 고집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집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불가능하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암송 구절(주제 본문, 한 주간 암송 가능한 말씀)

마가복음 16: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 자녀와 나눔 (가정 소그룹 예배 때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 40-80자)

1. 마리아는 부활 소식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답답해했지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해하신 적이 있나요?

2. 제자들이 잘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아빠에게 꾸지람을 받을만한 잘못이 있나요?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 **4월 네째 주** 날짜: 4월 28일

# 제목: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 본문: 고린도전서 13:1-13

# 찬송가 3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통397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통539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통404장)

# 여는 질문 60-80자 (Ice break 형태질문)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듯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가장 기억나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가깝게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친척, 친구, 이웃, 선생님 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사랑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지 나누어봅시다.)

# 본문 이해: 800-900자

본문 12절에 보면 현재를 가리키는 "이제"란 표현과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키는 "그때"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아직 희미하고 완전

하지는 못하지만 "그 때"에는 분명하고 완전해질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라 함은 책상의 다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든든히 떠받칠 수 있는 다리가 되려면 아무리 적어도 세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리 하나로는 전후좌우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두 개인 책상이라면 앞뒤로는 안 넘어질 수 있겠지만 좌우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나 두 개의 다리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셋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신앙의 세 가지 기초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기초를 다진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분명하고 완전한 신앙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시간에 근거해서 볼 때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도 "네가 지금 믿느냐?"처럼 현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희망 또는 소망일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란 실현성 있는 목표입니다. 장님에게 소망은 눈을 뜨는 것이고 귀머거리는 듣는 것이고 앓은뱅이는 일어나 남들처럼 뛰기도 하고 걷는 것이지요. 셋째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에 의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7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8-10절에서는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말하며 11-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이제부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 말씀 속으로(쉽지만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관찰-해석질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절수 표시, 40-80자 이내:1-2줄)

1.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란?  
(2)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2.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13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삶 속으로(적용 질문 2개, 40-80자 이내:1-2줄, 말씀을 칭의/성화/은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

1.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앓는다고 합니다. 내 안에 시기, 자랑, 교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경쟁사회인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로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좋아져야 합니다. 당연히 나보다 더 높거나 좋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내에는 시기, 자랑, 교만이 없어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자랑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나에게서 어떤 사랑이 참는 사랑일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잠깐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다는 것은 인내의 종류를 말하지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난, 압박, 핍박, 환란이 와도 참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시간, 인내의 종류를 묵상해보면서 내게 부족한 사랑의 인내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 암송 구절(주제 본문, 한 주간 암송 가능한 말씀)

고린도전서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자녀와 나눔 (가정 소그룹 예배 때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 40-80자)

1. 친구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 하나요?

2. 우리 식구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 하나요?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